

아동문학작품의 한영 번역 오류 분석: 조이북닷컴 작품 대상으로

우 형 숙
(숙명여대)

1. 들어가기

인터넷이 안방에까지 침투한 지 오래이다. 이제는 인터넷을 도외시하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힘들게 되었다. 한때 일부 계층만 접속하던 인터넷이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매체로 탈바꿈했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점점 폭넓은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문학도 점점 인터넷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실정이다. 그 중 아동문학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생동감 있는 삽화와 음향효과까지 가미시켜 기존의 인쇄본 책자보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점을 보이고 있다. 플래시동화 및 구연동화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살린 아동문학은 이미 많은 인터넷 독자를 확보해 놓았으며 몇몇 아동문학 인터넷 사이트는 무료 서비스 외에 유료 서비스도 열어놓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아동 문학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활발한 움직임 을 보이는 업체 중 하나인 조이북닷컴(주)(joybook.com)의 한영 번역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업체는 1999년 국내 최초로 멀티미디어 동화개발 인터넷 서 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조이북닷컴의 작품들이 인터넷의 여러 다음(daum)카 페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조이북닷컴에서 제공하는 작품들 중 동화 및 전기문의 몇몇 한영번역 작품¹⁾은 어휘 및 상황 차원에서 몇몇 번역 오류를 보 이고 있음에 따라 본 논문은 이들 오류를 어휘 차원과 상황 차원으로 구분 접 근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어휘 차원의 번역 오류 및 그 해결 방안

어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은 등가이다. 번역에서 어휘차원 의 오류는 대체로 단어의 등가성을 잘 고려해 보지 않은 결과이다. 번역에서 등 가성 찾기란 번역가가 담당할 몫이고 번역가는 모든 에너지를 등가성 찾기에 골몰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등가란 목표 언어의 내용, 형태, 문체, 기능 등이 원천 언어의 그것들과 일 치할 때 이를 ‘등가’라 한다. 등가는 번역학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선택 기준이 없으면 번역가는 자신의 경험과 모국어 및 외국어 언어 능력에 의존하여 번역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번역가는 자신의 직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 스스로가 정 하는 등가에 따라 번역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번역학에서 제시하는 번역전략 은 번역가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번역에서 등가 개념을 중시한 유진 나이다(Nida 166-167)는 등가를 두 가지 분야 즉 형식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형식적 등가’란 형식과 내용의 등가를 중시한 것이라 한다면 ‘역동적 등가’는 번역상의 동등 효과에 그 목적을 두어 원문의 메시지가 번역문의 메시지가 같아야 함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번역가는 이러 한 형식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를 감안하여 번역하되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

1) 『심청전』, 『토끼전』, 『콩쥐팍쥐』, 『허준』, 『황희』, 『김정호』, 『김유신』, 『윤봉길』, 『 선덕여왕』의 한영번역 작품

사하듯이 번역문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일대일 대응관계의 등가어를 찾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힘든 작업인데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위해 모나 베이커(Mona Baker 20-42)는 다음과 같은 번역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상위개념의 어휘로 번역할 것, 보다 중립적인 어휘로 번역할 것, 문화 대체어로 번역할 것, 차용어나 설명을 가미한 차용어를 사용할 것,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여 풀어 쓸 것, 관련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풀어쓸 것, 생략할 것, 삽화를 사용할 것 등이 그 전략들이다. 그런가하면 반웰(Barnwell 78-82)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낯선 어휘를 번역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도 있다. 즉, 낯선 어휘는 설명조로 풀어서 번역한다, 원천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목표 언어 독자들에게 익숙한 어휘로 대체시킨다. 그러나 이 전략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번역가는 알맞은 등가어 찾기에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장에서 살펴볼 상황 차원의 분석 이전에 우선 다음과 같이 어휘 차원의 오류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등가어가 있지만 상위 개념의 어휘로 번역한 경우

상위 개념의 어휘로 번역하는 경우는 원천 언어의 어휘가 목표언어에 존재하지 않아 등가어 찾기가 불가능할 때 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은 엄연히 목표언어에 합당한 등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개념의 어휘로 번역하여 보다 자세한 메시지 전달을 놓친 경우이다.

예1)

ST2):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가 대를 물려받았는데. (『선덕여왕』)

TT3): one of her relatives, Princess Seung-man, became the next Queen.

TT4): Princess Seung-man, her younger cousin, succeeded to the throne.

‘사촌’이란 등가어가 목표언어에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위의 번역문은 ‘사

2) source text(원천 텍스트, 즉 원문)의 약어.

3) target text(목표 텍스트, 즉 번역문)의 약어.

4)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번역.

촌' 대신 '친척'의 의미로 번역하였는데 정확한 내용 전달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텍스트일 경우는 치명적인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사촌이 친척임에는 틀림없지만 중요한 왕위 계승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애매하게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안 번역에서처럼 'relative' 대신 'cousin'이란 어휘를 택해야 한다. 또한 대를 물려받았다는 표현 역시 '차기 여왕이 되었다(became the next queen)'라는 표현 대신 원문에 가깝게 '왕위를 계승했다(succeeded to the throne)'라는 영어 관용 표현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하겠다. 번역가가 무심하게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오류는 번역가가 독자의 이해를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를 가져 텍스트 내용 파악에 만전을 기한다면 사실상 회복될 수 있는 오류이다. 또한 다음의 예도 좀더 구체적인 등가어가 필요한 경우이다.

예2)

ST: 뱃사람들이 꽝과리를 치며 외치는 것이었어요.(『콩쥐팥쥐』)

TT: Boatmen were drumming drums and yelling out.

TT': Boatmen were beating gongs and yelling out.

번역문의 'drum'은 우리나라에서 북이다. '꽝과리'는 우리나라에서 북이나 징과 더불어 대표적인 타악기이므로 낫쇠로 만든 꽝과리를 가죽으로 만든 북과 등가어로 생각하여 'drum'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안번역에서처럼 목표 언어에서 꽝과리와 유사한 'gong'을 선택하여 'beating(또는 hitting) gongs'란 표현으로 번역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또한 등가어 찾기 오류의 예이다.

예3)

ST: 왕세자도 죽을뻔 했는데 허준의 의술로 완쾌되었어요.(『허준』)

TT: The young prince also got the disease and almost died, but he recovered soon because of Huh Jun's help.

TT': The crown prince also got the disease and almost died, but he recovered soon because of Huh Jun's help.

왕자와 왕세자는 그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 왕세자는 왕위를 이어서 왕관을 쓰게 되는 왕위 서열에서 으뜸가는 왕자이다. 왕자의 병을 고쳐도 대단한데 왕

이 될 왕세자의 병을 고쳤으니 허준의 공이 왕실에서 특별난 것이다. 따라서 번역시에도 이를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목표언어에서 왕세자의 등가어는 'crown prince'이다.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문과 번역문의 효과적인 등가성 찾기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목표언어에 엄연히 존재하는 등가어를 놓치고 상위 개념의 어휘로 번역하는 자세는 번역가가 일차적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22 원문의 일부 내용을 생략하여 번역한 경우

원문의 어휘 및 일부 내용을 생략하여 번역하는 경우는 원문의 어휘가 번역하기 까다롭거나 번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생략하기도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여쁘다, 아리따다'의 마땅한 등가어를 찾지 못해 일반적인 대표적 의미 '예쁘다'로 번역하는 경우 또는 독자층에 따라 목표언어로 번역할 경우 문제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종교 및 성적인 경우 등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보자.

예1)

ST: 쥐들이 예쁜 옷과 꽃신을 물고 왔어요. (『콩쥐팍쥐』)

TT: Mice brought a pretty dress and shoes.

TT': Mice brought a pretty dress and a pair of floral shoes.

위의 예는 원문에서 꽃신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했다. 'a pretty dress(예쁜 옷)'의 'pretty'는 부정관사 'a' 때문에 'shoes'와 연결될 수도 없다. 'shoes'만으로는 신발의 아름다움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꽃무늬가 있는 신발인 꽃신을 'floral shoes'로 번역해야 원문의 내용을 살리는 번역이 된다. 글이란 단어하나 때문에 독자가 느끼는 감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2)

ST: 허준은 정성껏 침을 놓고 간호해서 임금님을 낫게 했어요. (『허준』)

TT: Huh Jun took good care of the king and had him recover from the disease.

TT': Huh Jun took good care of the king and had him recover from the disease.

TT: Huh Jun took good care of the king with acupuncture - sticking small needles into the king's body - and had him recover from the disease.

위의 번역문은 ‘정성껏 돌보았다’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번역하여 원문에 있는 중요한 치료법을 놓쳐버렸다. 허준은 침술로 병을 고친 훌륭한 의료인이었는데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 비록 침술을 나타내는 어휘 ‘acupuncture’가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이외에 교육의 목적도 가미되어야 하는 아동문학 작품, 특히 이 책이 아동용 전기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안 번역에서처럼 침술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번역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는 허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라는 사실 외에도 동양의 독특한 의술의 하나인 침술이 번역문화에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2.3 목표문화권에 어색한 어휘로 번역한 경우

원천언어의 문화와 목표언어의 문화가 달라서 원문의 어휘 및 내용이 글자 그대로 번역될 경우 목표 언어 독자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때는 목표문화권에 어울리는 어휘로 번역되어야 목표언어의 독자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예1)

ST: 용왕님은 큰 연꽃에 청이를 숨겨 연못으로 보내 주었어요. (『심청전』)

TT: The dragon king hid Chung in a large lotus flower and sent her to the pond.

TT': The Sea King hid Chung in a large lotus flower and sent her to the pond.

동양에서와 달리 영어권 문화에서는 용이 두려움의 존재이다. 따라서 원문의 ‘용왕님’을 글자 그대로의 번역을 하여 ‘dragon king’으로 번역하면 목표문화권의 독자는 용의 모습을 한 왕으로 여길 것이고 인자한 용왕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어려워 원문 내용의 흐름을 쫓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내용 전달 면에서 단어대단어(word-for-word) 번역보다는 목표문화권에 있는 어휘 ‘the Sea

King'으로 번역하면 목표문화권의 독자들의 이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단적인 예로 목표문화권에는 'dragon king'이란 표현은 없고 대신 글자 모습이 비슷하게 생긴 어휘 'drag king(레즈비언의 남장여성)'이 있다. 'dragon king'의 발음을 빨리하면 'drag king'과 유사하게 들리기도 하는 이 두 표현은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빚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음은 용왕이 사는 '용궁'이 'the water kingdom'이라 번역된 경우이다.

예2)

ST: “용궁?” “그래 용궁에 가면 금은보화가 다 네 꺼야.” (『토끼전』)

TT: “The water kingdom?” “Yeah. If you go there, you can get treasures such as gold and silver.”

TT: “The Sea King's Palace?” “Yeah. If you go there, you can get treasures such as gold and silver.”

(예1)에서처럼 '용왕'을 'the Sea King'(또는 the Ocean King)이라 번역하면 (예2)의 용궁은 'the Sea King's Palace'라 번역될 수 있다. 그런데 (예2)에서의 번역은 수중 왕국의 의미일 뿐 용왕이 사는 궁궐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kingdom'과 'palace'은 그 정의가 엄연히 다른 어휘인 것이다. 원문의 내용은 용왕이 사는 궁궐에 가면 금은보화를 다 가질 수 있음을 말하는데 번역문은 수중 왕국에 가면 금은보화를 다 가질 수 있음이 되어 버렸다. 등가어가 존재하여 목표 언어권에 사용되어도 무방한 경우 이 등가어를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번역이란 원천언어의 문화를 목표언어의 문화로 소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목표언어 독자에게 원문에서와 유사한 감동을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어휘 및 내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자면 번역가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숙달도 외에 두 문화간의 세밀한 상이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특히 아동이라는 특수계층의 독자를 겨냥한 아동문학은 그에 알맞은 눈높이의 어휘 표현법도 고려되어 번역해야 한다.

2.4 등가어가 있지만 원천 언어의 어휘를 음역한 경우

원천언어의 어휘를 음역할 때에는 목표언어에 등가어가 없을 때 주로 일어

난다. 고유명사일 때 음역이 일어나지만 특히 의성어가 발달한 한국어의 경우 ‘꽤지나칭칭’, ‘닐리리아’, ‘빨리리빨리리’,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등과 같이 도저히 목표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천언어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 삭제하거나 원문의 소리를 그대로 음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보자.

예1)

ST: 이듬해 대궐 앞에 모란꽃이 곱고 탐스럽게 피었어요. (『선덕여왕』)

TT: The next year, the front yard of the Palace was full of Mo-ran blossoms.

TT': The next year, the front yard of the Palace was full of peony blossoms.

모란꽃은 영어로 ‘peony blossom’이며 이 꽃은 목표문화권에서도 익숙하여 ‘blush like a peony’(얼굴을 새빨강게 붉히다)란 관용어구가 있을 정도이다. 만약 부득이 ‘모란’이란 어휘를 목표문화권에 소개할 의향이라면 ‘peony (or Mo-ran in Korean)’이란 부가적 번역 방법도 있다. 다음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예2)

ST: 김유신은 타고난 슬기와 칼 솜씨로 인해 15세에 화랑이 되었어요. (『김유신』)

TT: Kim Yu-shin became ‘Hwa-rang’ at the age of 15 due to his excellent talent and swordsmanship.

TT': Kim Yu-shin became an elite cadet ‘Hwa-rang’ at the age of 15 due to his excellent wisdom and swordsmanship.

위의 예문은 ‘due to his excellent talent and swordsmanship’ (타고난 슬기와 칼 솜씨로 인해)이란 표현 때문에 화랑의 의미를 어렵듯이 느낄 수 있겠지만 ‘화랑’은 신라시대의 문벌과 학식이 있고 외모가 단정한 문무 겸비한 유능한 특수 계층의 젊은이이며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공헌한 엘리트 젊은이이므로 별도로 독자의 시선을 끄는 번역을 해주어야 한다. 목표문화권에서 이와 비슷한 ‘an elite cadet’가 있지만 화랑이란 어휘를 목표 문화에 소개하고자 의도하는 번역이라면 ‘Hwa-rang - a cadet who excelled in beauty, bravery and military

arts in the Shilla Kingdom'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아동번역물이므로 설명적이기보다는 읽기에 좋게 대안번역에서처럼 'an elite cadet'와 화랑을 동격 처리하여 화랑이란 어휘를 소개하기도 하고 화랑이 무엇인지 알리는 번역방법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an elite cadet'란 표현을 추가하지 않고 'Hwa-rang'만 써도 목표언어 독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목표독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무리한 음역은 잘된 번역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야 한다. 또한 위의 예의 경우, '술기'의 등가어는 'talent'가 아닌 'wisdom'이므로 이는 등가어 오류이다.

2.5 부적당한 어휘로 번역한 경우

부적당한 어휘로 번역한 경우는 번역가가 원문의 내재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 주로 일어난다. 원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해주지 못하는 어휘 선택은 번역가의 기본 소양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예1)

ST: 그는 칩칩산골에서 늑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꼬박 밤을 지새웠다.

(『김정호』)

TT: He spent nights in the remote mountain districts listening to the howl of wolves.

TT': He couldn't sleep well every night in the remote high mountains hearing the howl of wolves.

예에서 보듯이 원문의 '늑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가 'listening to the howl of wolves'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역번역하면 '늑대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며'의 뜻이 된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아도 들리게 되는데 초점을 두자면 'listening'이 아니라 'hearing'으로 번역함이 옳다. 또한 원문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다'가 번역문에는 'spent nights'로 번역되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 주지 못하고 있다. '밤을 지새우다'란 뜻은 '고스란히 뜬눈으로 밤을 보낼 만큼 잠을 자지 못했다'란 뜻인데 번역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전달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 번역처럼 ‘늑대소리 땀에 잠을 잘 잘 수 없었다’는 의미로 번역하든지 또는 글자 그대로 ‘밤을 꼬박 지새우다(stay up all night)’로 번역해야 한다.

예2)

ST: 고려시대의 훈도란 서당의 훈장이면서 사또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벼슬이었어요.(『황희』)

TT: Hun-do was the superintendent of local schools and administration offices in Goryo.

TT': Hun-do was a village schoolmaster and adviser to the local governor in Goryo.

예문에서 보듯이 원문에서의 ‘서당의 훈장이면서 사또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벼슬’이 번역문에서는 ‘지방의 여러 학교와 행정청들을 관장하는 책임자’로 되어 있다. 이는 원문을 너무 확대 해석한 번역이다. 일찍이 역사상 훈장은 사또의 조언자 역할을 한 위치이므로 ‘adviser’가 들어가며 또한 ‘A이자 B’인 구문을 사용하여 “a village schoolmaster and adviser to the local governor”로 번역함이 옳다. 다음의 예도 번역문과 원문이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이다.

예3)

ST: 포졸 한 명이 꽃신 한 짝만 신고 있는 궁궐을 보았어요. (『콩쥐팍쥐』)

TT: One of the King's followers saw Kongji missing an odd pair of shoes.

TT': One of King's constables saw Kongji wearing only one shoe.

위의 원문에서는 궁궐이 신발 한 짝만 신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번역문에서는 궁궐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즉 위의 번역문을 역번역하면 ‘왕의 신하 한 명이 궁궐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음을 알았다’의 뜻이 되어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는 상황’을 놓쳐 원문의 뜻과는 차이를 보이는 번역이다. 또한 ‘포졸’을 ‘신하’ 또는 ‘수행원’의 뜻 ‘follower’인 상위 개념의 어휘로 번역하기보다는 목표문화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낮은 지위의 경관인 ‘constable’(또는 guardsman)로 번역하면 ‘포졸’에 보다 가까운 구체

적인 번역이 된다. 이 대목은 콩쥐의 정체가 알려지는 중요한 장면이므로 독자의 눈에 꽃신 한 짝만 신고 있는 모습이 포졸의 눈에 띄는 상황이 그려지도록 세밀하게 번역해줌이 바람직하다.

2.6 원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경우

번역가는 번역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어휘 및 인물에 대한 제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지런한 번역가가 훌륭한 번역을 생산해낸다 함은 바로 이러한 번역가의 정보 파악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원문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미흡한 번역이 된 경우이다.

예1)

ST: 선덕여왕이 좋은 정치를 펼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외교에 능란한 김춘추, 용맹한 장군 김 유신, 알천, 그리고 자장율사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덕여왕』)

TT: The reason that Queen Sun-duk could govern the country so peacefully was that she had such great subjects as Kim Chun-chu who was an expert at foreign policy, the brave general Kim Yu-shin, Al-chon and Jajang Yul-sa.

TT': The reason that Queen Sun-duk could govern the country so peacefully was that she had such great subjects as the diplomatic official Kim Chun-chu, the brave generals Kim Yu-shin and Al-chon, and the high-ranking Buddhist monk Ja-jang.

위의 예문은 ‘알천’과 ‘자장율사’에 대한 번역가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번역 오류이다. 역사적으로 ‘알천’은 김 유신과 같은 장군이었으며 진덕 여왕 때에는 재상을 지낸 바 있는 귀족이었다. 따라서 그냥 ‘알천’이란 이름만 쓸 게 아니라 김유신 장군과 함께 묶어 ‘the brave generals Kim Yu-shin and Al-chon’이라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귀국하여 선덕여왕의 명에 따라 통도사를 창건한 스님이고 ‘율사’는 고승에 붙여지는 존칭으로 단지 음역만을 할 것이 아니라 ‘the high-ranking Buddhist monk

Ja-jang'으로 번역해야 한다. 한편 외교에 능한 김유신'을 'who was an expert at foreign policy'란 관계사 절로 풀어서 번역하는 것보다는 'the diplomatic official'이란 수식어를 '김춘추' 앞에 첨가하면, '김유신'과 '알천'의 수식어 'the brave generals', '자장'의 수식어 'the high-ranking Buddhist monk'와 평행구문을 이루어 대안번역에서처럼 'A, B, and C'의 결속구문을 만들 수 있다.

예2)

ST: 김정호의 지도를 본 대원군은 화를 벌컥 내었어요.(『김정호』)

TT: When Daewon-gun saw the map, he all of sudden got mad.

TT': When the King's father and regent saw the map, he all of sudden got mad. (or The King's father, who saw the map, all of sudden got mad)

'대원군'이란 왕위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왕족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경우 그 왕의 친아버지에게 봉하던 직위이다. 그러나 번역문은 마치 대원군이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고유명사화 하여 음역을 했다. 특히 이때의 '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로 섭정을 했던 사람인데 이를 주석을 달아 설명해 주거나 위의 대안번역에서처럼 간단히 왕의 아버지이자 섭정을 했던 사람으로 'the King's father and regent'란 표현으로 번역하거나 그냥 'the King's father'로 번역해 주면 최소한 독자로 하여금 '도대체 대원군이 누구인데 지도를 보고 화를 낼 자격이 있지?'란 의구심을 줄일 수 있다.

3. 상황 차원에서의 번역 오류 및 그 해결 방안

번역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려면 어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상황차원에서도 그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문체상으로도 원천언어의 메시지를 목표언어로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등가로 재생산하는 것(Nida & Taber 12)이므로 어휘뿐만 아니라 상황차원에서도 원문과 번역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차원의 오류는 우선 두 언어의 문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 문법은

건물의 구조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그 근본이 흔들리면 내용상 그 의미가 달라 지므로 번역가는 원문의 정확한 구문 분석 외에 번역문에서도 올바른 구문을 생산해 내야 한다. 영어와 한국어는 어족(語族, language family)이 다르므로 당연히 구문 배열도 다르다. 따라서 적당한 등가어를 찾는 작업 못지않게 등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문장 구조를 생각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맥과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 상황도 내용의 흐름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접속은 텍스트의 결속력을 갖게 해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본 논문이 살펴본 작품에서는 접속사나 접속 부사의 오류보다는 문장과 문장간의 흐름상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번역이 있었다. 이는 원문으로 인해 생긴 번역오류였는데 원문이 개작 과정에서 무리 하게 독자의 수준에 맞추느라 레이아웃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경우였다. 원문 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 이는 고스란히 번역에서의 오류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 우 번역가는 번역에 앞서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개작하기 이전의 원문을 읽거나 또는 삽화를 통해 내용을 짐작하여 줄거리의 흐름이 무리가 없도록 내 용을 덧붙여 줄거리의 내용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상황차원의 오류 를 구문과 내용 접속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3.1 구문 오류의 경우

구문 오류는 문법상의 오류이다. 번역가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올바른 문법 지식으로 건설한 번역구문을 생산해 내는 기본기가 요구된다. 번역 가는 번역문을 생산한 뒤 역번역(back-translation)을 시도하여 원문의 메시지와 동일한 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원문과 다른 내용으로 독자에게 전달될 애 매한 구문은 피하는 게 좋고 특히 독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준에 합당한 구문 생산력이 요구된다. 다음의 번역 예문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예1)

ST: 선덕 여왕은 왕위에 오른 지 15년만인 64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식이 없어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가 대를 물려받았는데 이 분이 신라 의 두 번째 여왕인 진덕 여왕이지요.(『선덕여왕』)

TT: In 647, 15 years after becoming Queen, one of her relatives, Princess Seung-man became the next Queen since she had no children. Princess Seung-man later became Queen Jin-deok, the second Queen of Shilla.

TT': In 647, Queen Sun-duk passed away 15 years after she ascended the throne. Since she died without any children, her cousin, Princess Seun-man, succeeded to the throne. The new queen is called Queen Jin-deok, the second queen of Shilla.

위의 번역문에서 보듯이 원문의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다’의 의미가 번역문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번역 예문의 첫 문장의 주어가 승만이 되어 버려 구문상 ‘becoming Queen’의 주체가 선덕이 아니라 승만이 되고 있으며 인칭 대명사의 지칭 대상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애가 없는 사람이 선덕여왕인데 번역문의 ‘she’는 구문으로 볼 때 승만 공주를 가리켜 승만 공주가 애가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later became’으로 인해 의미상 혼란을 주고 있다. 즉 승만 공주가 차기 여왕이 된 상태인데 나중에 또 선덕 여왕이 된다는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원문의 의미가 되려면 대안 번역과 같은 문장이 생산되어야 한다.

예2)

ST: 윤봉길은 홍구 공원에서 폭탄이 장치된 물통과 도시락을 들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윤봉길』)

TT: He was looking for a chance to throw his lunch box and water bottle bomb in Hong-gu Park.

TT': He was looking for a chance to throw his bomb-carrying water bottle and lunch box in Hong-gu Park.

전체 줄거리를 보면 윤봉길은 일차적으로 폭탄이 장치된 물통을 던지고 그 다음 이차적으로 폭탄이 장치된 도시락을 던진다. 즉 물통과 도시락 모두가 폭탄이 장치된 것이다. 그런데 번역문은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폭탄을 단수 ‘bomb’으로 받고 있다. 그에 따라 “폭탄이 장치된 물통과 도시락”의 표현이 물통만 폭탄이 장치된 상황으로 번역되어 있어 도시락도 폭탄 위험물인 것

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어가 복수 접미사 ‘-들’을 표층구문에서 보여 주지 않는 현상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런 오류는 번역가가 원문 전체의 줄거리를 정확히 파악한 뒤 번역에 임하면 없어질 수 있는 오류이다. 따라서 bomb을 복수형으로 해야 하며 순서도 원문처럼 물통과 도시락의 순서이어야 한다. 또는 폭탄이 물통과 도시락에 모두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bomb-carrying’이란 어휘를 활용하여 “his bomb-carrying small water container and lunch box”로 번역하면 ‘his’로 인해 ‘bomb-carrying’이 물통과 도시락을 수식하게 되므로 원문과 내용상 어우러지는 번역이 될 수 있다.

3.3 내용 접속 오류의 경우

‘접속’은 텍스트에서 앞뒤의 문장 혹은 절을 이어주어 내용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독자는 접속어를 통하여 텍스트의 문맥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문 작가는 번역 작가는 접속표현을 구현하여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본 이동 번역물은 한 문장 내의 접속에서는 적절한 접속사를 이용하여 대체로 무난한 흐름을 보였으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분에서는 다소 무리함을 보여 독자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원문에서 오는 오류인데 원문이 무리하게 각색을 하여 그 결과 내용 흐름이 어색하게 된 것인데 번역문도 역시 그러한 접속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즉 한 문장 내에서의 접속 오류보다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 맥락이 혼란스러워진 경우가 하겠다. 다음의 예를 보면서 접속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1)

ST: 심 봉사는 청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울가로 갔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심 봉사를 구해 주었어요. (『심청전』)

TT: Blind man Sim, was heading towards the creek while calling out for Chung.

“Help me. Help me.”

Just then a monk was travelling by and went to rescue blind man, Sim.

TT: Blind Man Shim was heading for the creek, calling out for Chung.
Then he slipped and fell into the creek.

“Help me. Help me.”

Just then a monk was travelling by and went to rescue the blind man, Shim.

원문에서부터 왜 심 봉사가 “사람 살려”를 외쳤는지 상황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개울가로 오기 전에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는 도중에 일을 당한 것인지 그 상황이 명확치 않다. 삭제이전의 원문 내용에 의거하면 심 봉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원문에 표현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이 구절이 빠져 있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번역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번역가가 번역하기 전에 원문을 먼저 읽은 뒤 전체적 글의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색된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가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의 경우는 “Then he slipped and fell into the creek”을 삽입하여 글의 흐름을 이어줄 수 있다. 또한 아동문학의 경우 삽화가 첨가되는 게 대부분인데 원문에는 없어도 원문의 삽화에는 글의 흐름에 도움이 될만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 번역가는 이에 힌트를 받아 비록 각색한 원문에는 없어도 몇몇 표현을 첨가시켜 번역해주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삽화에는 나와 있지만 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부모가 아동에게 읽어 줄 때 아동은 삽화를 보지 못해 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따라서 글 자체에서 원활한 내용의 흐름을 위해 내용 삽입이 불가한 것이다. 아동 문학 텍스트 생산자는 원문이든 번역문이든 항상 낮은 연령층인 독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다음의 (예2) 또한 그런 경우이다.

예2)

ST: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콩쥐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지. 새엄마를 맞아야겠군.”

새엄마는 꿩쥐라는 딸과 같이 집에 들어 왔어요. (『콩쥐팍쥐』)

TT: There was no one to take care of her when her mother died.

“What can I do for her? She needs a stepmother.”

The stepmother had a daughter of her own, Patji.

TT: There was no one to take care of her when her mother died.

“What can I do for her? She needs a stepmother.”

Her father decided to remarry for his daughter. But the stepmother brought her own daughter Patji to Kongji's house to live together.

위의 원문은 글의 흐름이 너무 빨라 번역문에서도 그 맥락을 놓친 경우이다. 원문에서는 인용부호 내의 말을 한 화자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번역문에서 이를 ‘I’로 진행시키고 있다. ‘I’가 아빠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가 되어 걱정해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경우는 지칭 대상이 글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또한 번역문에서는 아빠의 재혼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새엄마가 자신의 딸 꾀쥐가 있음만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대안 번역에서처럼 아빠의 재혼 상황을 보여주고 새엄마가 훌훌 단신이 아닌 자신의 딸과 함께 꾀쥐네 집으로 오게 됨을 보여야 후속하는 내용과 접속 면에서 무리가 없다.

4. 나가기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아동문학 사이트 중 조이북닷컴(주)의 한영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작의 내용을 아동들이 읽기 쉽게 각색하기란 또 하나의 창조적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번역문으로 재생산 시키는 일 또한 창조적 능력이 요구된다. 독자에 맞춰 각색이 된 원문을 번역으로 재생산하자면 원문이 일차적으로 타당성 있는 올바른 작품이어야 한다. 아동을 독자로 하는 원문이나 번역문은 일차적으로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학습효과 면도 고려하여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어휘 및 상황 전개가 요구되느니만치 원문 작가 및 번역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번역가가 직관과 능력을 통해 생산한 아동문학 한영번역물에 몇몇 오류를 발견하고 어휘 차원과 상황 차원에서 그 오류를 분석 정리하여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어휘 차원의 오류는 등가어가 있지만

상위 개념의 어휘로 번역한 경우, 원문 내용 일부를 생략한 경우, 목표문화권에 어색한 어휘로 번역한 경우, 등가어가 있지만 원천언어의 어휘를 음역한 경우, 부적당한 어휘로 번역한 경우, 원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 차원의 오류는 문법상의 구문 오류의 경우와 내용 집속의 오류로 인한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예문을 통해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 살펴보고 설명과 더불어 그 번역 대안을 제시했는데 번역가가 보다 더 세심한 자세와 능력으로 작업에 인한다면 극복 될 수 있는 오류들이었다. 특히 번역가는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한 언어 능력으로 독자층의 눈높이에 알맞은 어휘 및 구문 생산력을 보여야 하며 두 문화의 비교 및 제반 상황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영어의 세계화 추세로 어린 나이에 영어에 접하게 되는 아동들은 영문 번역물을 통해 문학을 감상하기도 하고 영어지식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영어권 나라에 사는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의 아동들이 한국문학을 감상하기 위해 영문 번역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영문 번역물은 그 내용이 원문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또한 번역물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 되려면 번역의 검증과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검증 과정의 일부이기를 바라며 앞으로 인터넷에 번역 작품을 게재하는 작가 및 업체는 번역 작업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용문헌

www.joybook.com의 세계동화 (영문으로 듣기):

『심청전』, 『토끼전』, 『콩쥐팥쥐』, 『허준』, 『황희』, 『김정호』, 『김유신』, 『윤봉길』, 『선덕여왕』의 한영 번역 작품

참고문헌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rnwell, K.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Jak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ed.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113-118.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_____ & Taber. 1969.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Abstract]

Korean-English Mistranslation of Juvenile Stories

Woo, Hyung-so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ranslation has brought people of different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s close together. It has built bridge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mong different societies. In the respects, the translation of juvenile stories can be said to be of great importance. By reading translated stories, children can also contact and experience exotic things or happenings.

These days more and more children have been enjoying translated foreign juvenile stories over the Internet. It is no wonder when we think that we are living in the age of the Internet. But the problem is that some translated juvenile stories contain some aspects of mistrans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mistranslated parts in Korean-English translated juvenile stories, suggesting some strategies for better translation.

In order to develop some translation strategies, this study classifies mistranslation of juvenile stories into two great parts: mistranslation on the word level and mistranslation on the situation level. Each part is also divided into more specific subparts. On the word level, mistranslation takes place with a more general word, omission, a non-lexicalized word, a loan word, a non specific word, and lack of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level, mistranslation takes place with the wrong structure and the unnatural conjunction of the contents. Even though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ranslated juvenile stories, it is also designed to open possibilities for analyzing the translated works in other fields.

▶Key Words: formal equivalence, dynamic equivalence,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 back-translation, adaptation, mistranslation

유형숙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영문학(번역학)

연락처: hyungswo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06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8일

K C I